

전주시 탄소소재 국가산단 투자유치 '올인'

입주 예정기업 100개사 초청
인센티브 지원 등 투자설명회
내년 국가예산 1220억 확보
2020년 탄소기업 100곳 목표



지난 14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단 조성'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렸다. <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국가사업으로 조성되는 탄소 소재 국가산단 입주할 기업 유치를 본격화한다.

탄소 소재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최근 확정된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당초 예상(5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총 1220억원이 확보되면서 조기 완공에 판란불이 켜졌다.

시는 지난 14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탄소 소재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에 투자를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입주 예정 기업 100개 업체의 관계자 130여 명을 초청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투자설명회는 입주 예정 기업에게 투자처인 전주의 현황을 소개하고, 직접 눈으로 전주가 보유한 탄소 관련 인프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탄소산업 중심도시 전주'를 주제로 전주의 환경과 교육, 교통 여건을 비롯해 기업에 최적화된 인프라 제공과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등 지원계획을 소개했다. 또 국가산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참여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탄소 복합재 상용화 기술센터를 견학하고, 이천투자기업인 (주)테크카본을 방문해 전주시가 보유한 탄소 관련 인프라와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보 등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국가산단지 조성사업은 전주 시 덕진구 동산동과 고량동 일원에 2022년까지 1706억원을 들여 65만6000㎡ 규모의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130개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시는 앞으로도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세일즈를 통해 국가산단 조성(20만평)에 맞춰 2022년까지 탄소 복합재 활용 강소기업 100여 개사 이상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산단지가 탄소 기본소재부터 최첨단 항공 부품 생산까지를 아우르는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면 6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국가산단지가 조성되면 탄소 관련 기업들이 이전하고, 기존 기업들과 동반성장을 이뤄내 전주가 세계적인 탄소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먹거리인 탄소산업 발전을 견인할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끝

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투자설명회에서 일반산업단지와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내 증설투자계획을 확정된 비나텍(주)·(유)두레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비나텍은 협약에 따라 향후 총 75억을 투자해 3300㎡(1000평)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고 2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두레원은 100억을 투자해 3만㎡(9090평)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고 20여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연안지역 관리계획 수립 추진

유기상 군수 등 참석 공청회

고창군이 최근 '연안 관리지역관리계획 수립공청회'를 개최해 어업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유기상 군수, 김만기 도의원,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과 지역 13개 어촌계장과 어업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연안관리법 및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관할 연안의 환경, 이용·개발수요, 향후 관리방향 등의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뤄졌다.

군은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연안의 특징과 여건을 분석해 연안용도해역, 연안해역기능구를 설정하고 연안관리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한 최종계획안을 수립해 다음달 전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 상정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 5월부터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할 연안해역·육역 1068km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왔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익산시, 역사·문화유산 홍보영상물 '미디어 월' 설치

익산시는 지난 15일 익산역 광장에 역사, 문화유산, 관광을 홍보하는 영상시설물 '미디어 월' (media wall)을 설치했다. <사진>

이번 설치된 미디어 월은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 모형에 대해 전광판(169인치)을 부착한 영상시설물이다.

이 시설물은 익산의 문화유산, 관광 정보, 문화콘텐츠를 상영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임을 알린

다. 시와 코레일전북분부는 설문조사, 시민 디자인 공모,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시설을 설치했다.

미디어 월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알리면서 시민의 문화역량 강화, 문화네트워크 형성, 지역 문화 활성화 등을 꾀하는 사업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iy@

정읍시, '올해를 빛낸 브랜드 대상' 도시브랜드 부문 수상

민선 7기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정책사업 성과

정읍시가 '2018 올해를 빛낸 브랜드 대상' 도시브랜드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사진>

이번 대상은 정읍시가 민선 7기 시정방집을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으로 정하고 감동 관광도시, 지역 농업·농촌 살리기, 복지와 교육기반 확충, 안전이 최우선인 행정, 도시 균형 발전 등에 행정력을 결집한 공로다.

시에 따르면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첨단연구기반 시설 확충과 기업유치 등의 첨단산업 육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 황토현 전승일(5월 11일) 선정하고 정읍규절초꽃축제 등 대표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謠)를 테마로 한 정춘가요특

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첨단연구시설에 기반한 축산약취 문제 해소와 농민수당 개념인 공익형 직불제사업을 비롯해 스마트팜 조성 등 혁신 선도 농업 육성에 힘을 쏟았다.

아울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다문화가정 확대, 치매안심센터 건립 추진과 청소년 활동 지원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 등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부전동·금봉동 재해위험 지구 정비, 여성화장실 긴급 호출벨 설치 등 안전망 확충뿐만 아니라 작은말고개와 죽림터널 도로 개통을 추진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애민(愛民)과 경민(敬民)의 자세로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고 더욱 발전하며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이토록 더 많은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 올해를 빛낸 브랜드 대상' 시상식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됐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조직개편안 마련 기업지원과 등 3개과 신설

남원시는 기업지원과, 농촌 활력과, 치매안심과 등 3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2022년 남원에 개교할 예정인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공공의료대학 담당'을 신설하는 등 담당 5개도 늘린다.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현행 5 국·직속 기관, 23 실·과, 206 담당에서 5 국·직속 기관, 26 실·과, 211 담당으로 바뀐다.

시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주요 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군산시의회, '군산형 일자리 창출 건의문' 채택

군산시의회가 17일 '제5차 본회의'를 갖고 김경식 의원이 제안한 '군산형 일자리 창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군산은 현대중공업군산공장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협력업체가 도산하거나 폐업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까지 참담하게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은 GM 군산공장과 기존 협력업체, 숙련된 노동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GM 군산공장의 조속한 매각과 활용방안을 마련해 군산형 일자

리 사업이 당장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산업단지를 미래형 자동차 생산 특구와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산업 메카로 육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군산시의회는 "군산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재건하고 미래 산업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등 국가적 역량을 모아 달라"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전북도에 보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전원주택, 부지 급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

덕남동 임야 1~2년내 대박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일시불조정가)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문의. 010-6834-7400